

광주여자대학교, 2026 대한항공배 전국 대학 배구 2연패



광주여자대학교 배구선수단 단체사진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전갑수 체육회장, 광주 대학배구 저력 입증

대학 스포츠 육성 지원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전갑수)는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배구부가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2026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에서 전 경기 무실세트 우승을 기록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여자대학교는 조별리그에서 호남대학교와 동의대학교를 각각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제압하며 A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준결승에서도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결승에 올랐고, 지난 7월 3일 열린 결승전에서는 우석대학교를 세트스코어 3대0(25-17, 25-21, 25-16)으로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다.

광주여자대학교 배구부는 대회 기간 단 한 경기,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한 빠른 공격 전개와 조직적인 팀플레이, 선수들의 뛰어난 집중력이 조화

를 이루며 대학 여자배구 최강팀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올해는 주축 선수들의 졸업으로 전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탄탄한 조지력을 구축했고, 선수단 모두가 하나로 뭉쳐 대회 2연패라는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대회에서 개인상도 휩쓸었다. 최성우 감독이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김민체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또한 이소민이 서브상, 김민주가 블로킹상, 장지혜가 리베로상을 각각 수상하며 광주여자대학교의 뛰어난 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광주여자대학교 배구부는 지난해 우승에 이어 올해도 전 경기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학 여자배구를 대표하는 명문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지난해 MBC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필승 원더독스'와 경기를 펼치며 뛰어난 경기력으로 대중들에게도 대학 배구의 매력을 알린 바 있다.

최성우 감독은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땀과 노력은 물론, 이선재 광주여자대학교 총장님과 광주광역시체육회, 학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특히 주축 선수들의 졸업으로 팀을 새롭게 꾸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린 선수들이 서로를 믿고 하나로 뭉쳐 무실세트 전승 우승과 대회 2연패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며, 광주여자대학교 배구단이 대한민국 대학배구를 대표하는 명문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기영 기자

기아, 오션클린업에 해양 환경 보호 협력을 위한 전기차 지원

기아가 글로벌 파트너사인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The Ocean Cleanup)'에 전기차를 지원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아는 지난 2024년 오션클린업

에 EV6 1대와 니로 EV 3대를 지원한 데 이어 EV3 2대와 EV4 2대 등 총 4대의 전기차를 새로 제공한다. 해당 차량은 해양과 하천에서 폐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오션클린업의 현장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공된 EV3 2대에는 해양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차량용품인 EV3 전용 트렁크 라이너(매트)[1]가 장착됐다.

EV3 전용 트렁크 라이너는 기아와 오션클린업이 협업하여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에서 수거 후 추출한 해양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이는 해양 폐기물이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다. 또한 이번 지원은 기아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브랜드 방향성을 보여준다.

기아 유럽법인 단테 질리(Dante Zilli) 마케팅 디렉터는 "오션클린업과의 파트너십은 기아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이루는 핵심 축으로서 차량 지원을 비롯해 폐플라스

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기적인 혁신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깨끗한 해양 생태계와 책임 있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션클린업 리카르도 파리나(Riccardo Farina) 파트너십 총괄은 "기아는 단순 후원을 넘어 운영 전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공동의 목표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기아의 적극적

인 참여는 파트너십 인지도 제고부터 현장 운영 지원, 해양 폐플라스틱의 재자원화까지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오션클린업과 2022년부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해양 폐플라스틱의 90%를 제거한다는 목표 아래 재정 지원을 포함한 기술 및 연구 협력, 차량 지원 등 여러 방식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기영 기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반도체 800조 환영합니다!

전남·광주
미래 100년
첨단산업의 중심!

사단법인
전국기자 협회장 | 김 경